

21세기를 위한 에너지 정책 과제

이 글은 지난 9월 2일 쉐라톤 워커히 호텔
에서 “21세기 에너지산업 발전방향”을 주제로
개최된 에너지경제연구원 창립10주년 기념세
미나에서 안광구 통상산업부 차관이 만찬연
설한 영문 원고를 옮긴 것이다.

만찬에 참석하신 여러분, 오늘 에너지경제연구
원 창립 10주년을 맞아 본인이 만찬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10년간 에
너지경제연구원이 이룩한 수많은 업적에 대하여 진
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본인은 오늘밤 21세기 한국의 에너지의 미래에
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인
이 말씀드릴 이슈는 연료간 대체(inter-fuel
substitution)와 정부간 에너지기술협력입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급속한 경제성장을 시작한
이후, 선진국 및 개도국 모두로부터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국경제의 성공은 낮은 인구
성장률, 높은 교육열, 그리고 60년대 후반 산업화
초기단계에서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규모 투자
를 바탕으로 합니다. 저개발 경제로부터 현수준으
로의 빠르지만 순조로운 전환에는 또한 안정적 에
너지공급을 지향한 에너지계획도 기여한 바 큼니
다. 한국경제의 성공담은 장기에너지계획, 정부의
정책 및 프로그램, 에너지경제연구원 같은 연구기
관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한국경제는 전례없는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에



안광구 통상산업부 차관

너지소비 또한 예상을 상회하여 증가했습니다. 제
조업부문의 중공업 확대와 개인소득의 증가는 에
너지소비를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저수준의
안정적인 에너지가격은 에너지수요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부는 74년의 제1
차 오일쇼크 이후에도 역동적인 경제발전을 지원하
기 위한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환경”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92년 리우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FCCC)이 94년 3월 발효되었습니다. 기후변화협약은 기후변화의 악영향이 현재와 미래의 생태시스템에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기후변화협약은 기후변화 관련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책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세계 각국이 이것을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한국경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발전전략이란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조성에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제약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환경보호 문제는 증대하는 대중경제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님비”(Nimby)라는 단어가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더 이상 낯선 말이 아닙니다. 대중수용(PA)은 에너지시설 건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화석연료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야기된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와 원자력발전의 확대, 에너지효율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약,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촉진하는 산업정책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공급측면에서는 탄소함유량이 적은 연료로의 대체, 수요쪽에서는 기술개발을 통한 에너지효율 개선이 한국경제에는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료간 대체에 대해서 한국은 이미 상당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석탄과 석유사용 대체로 천연가스와 원자력발전의 이용은 지난 10년간 상당히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수십년간 계속될 것입니다. 87년 LNG형태로의 천연가스 도입과 2000년 완공 예정인 전국배관망 건설은 매우 성공적인 에너지 프로젝트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번째 이슈는 기술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인데, 이것은 에너지 효율개선을 촉진할 것입니다. 한국의 에너지효율 개선 속도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느린 편인데, 이것은 저수준의 국제 에너지가격과 에너지비용이 총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 일부 산업에서는 기술개발투자에서 에너지절약 노력은 소홀히 취급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기술이용을 통한 에너지절약은 공급측면의 부하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은 좁은 나라이기 때문에 에너지시설에 필요한 토지이용은 경제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인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1세기 한국경제의 성공은 상당부분 기술협력에 달려있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며, 기술협력은 기술이전, 역량증대 및 자신감 배양을 촉진할 것입니다. 기술개발은 한국이 급속한 환경변화 속에서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양면의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입니다.

기술협력은 여러가지 이유로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이유라면 80년대 이후 기술 패러다임이 변화되어 선도기술은 더욱 정교해지고 개발에 보다 큰 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기술개발이란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고 상당한 정도의 위험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관련국간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은 에너지자원 및 기술 개발에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비교우위에 기초한 관련국간의 전략적인 협력은 상호간에 상당한 편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행사준비 관계자들과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